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797호
주소 | 560-912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전화 | (063)285-0041 팩스 | (063)283-9365 http://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

강론 ...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



김진화 신부
(우림 성당 주임)

우리는 매 주일미사중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신앙고백 합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순시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사순시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회개(하느님께로 발길을 돌림, 지금의 상태를 벗어남)와 하느님을 만나는 문제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고백하는 신앙고백을 믿고 실천에 옮기며 살아왔는지,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며 참고 견디어 왔는지를 반성합니다.

영원한 삶을 믿고 산다면 세상의 가치들(재물, 칭찬, 편리함, 즐거움, 비교우위)에 집착하지는 않았는지, 은근히 그런 가치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이켜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남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주고 있는지, 또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그동안 잘못에서 벗어나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가려 노력했는지를 반성합니다. 죄많은 나는 정말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없으면 변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늘 후회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칭찬받고 적당한 편리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인기있게 사는 것이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에 가는 데에 왜 장애가 될 수 있는냐고 묻습니다. 잘만하면 이 둘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며 살다가, 정작 세상 것들 중에서 한가지라도 없으면 하느님과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리고 마는 지금의 저를 반성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유혹들을 성경 말씀으로 이겨내고 계십니다. 사순절을 잘 준비하여 부활을 살고 싶습니다.

숲머리 생각



사순 40일,
영혼을 살찌워야 할 시간.

문정섭(베드로)

참된 힘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분당 주임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의 원수, 그 사람은 바로 이 교활한 하만입니다.” 에스테르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에스 7,6)

힘이 있다고 위세를 떨치는 자는 언젠가 쇠할 때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호걸의 웅대함도 소설에서나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없다. 인간의 상상과 허영은 온갖 우상을 만



우리름을 강요하고 비위에 거슬린 자들을 죽이려 했다. 모르도카이와 유대인들이 밧에 걸려 들었다. 맞서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음모가 왕후의 고발로 드러나고 사건의 진상이 밝

들어 사람을 도취하게 하지만 결국 하릴없는 졸부들의 헛된 꿈일 뿐이다. 진정한 용기와 위대함은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빛깔이어야 한다. 세상의 힘은 쇠하고 말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힘은 쇠하지 않는다.

혀지게 되었다. 왕의 분노와 저주가 떨어졌다. 헤어날 길 없는 나락 앞에서 하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위풍당당했던 지난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졸부의 비굴함만이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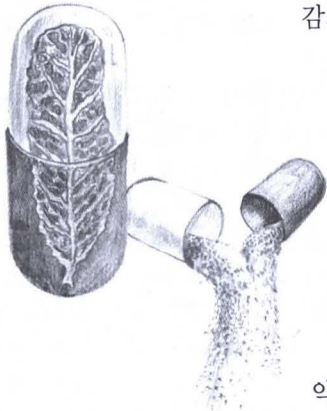
에스테르는 왕후였지만 연약한 여자였다. 그녀의 성품상 힘과 권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힘을 과시할 간교함은 더욱 없었다. 하느님의 뜻과 율바름으로 왕실에 봉사하는 소임만을 다했을 뿐이다. 그러나 하만의 모함으로 유대인들이 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에 절망이나 비겁함의 그림자는 없었다.

진정한 힘과 용기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에스테르가 그랬던 것처럼 참된 힘은 하느님께 의탁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세상의 권세는 대단해 보여도 허약하기 짝이 없다. 자신마저 파멸로 인도하기 십상이다. 하만은 스스로 우쭐대다 제 꺾에 빠지고 말았다. 죄가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야 사람은 본 모습을 드러낸다. 비굴한 자는 결말의 순간에도 추하다. 사람은 때론 반전의 순간이 있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왕의 신하였던 하만이 오히려 힘과 권세를 부렸다. 권력의 힘에 맞들인 그는 백성들에게

그림 박종구(바드리시오)

자연이 약이다



갓 돌이 넘은 아기가
감기가 악화되어
폐렴으로 병
원에 입원
했다가, 이
제 퇴원했
다는 아기
의 엄마를
만났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지어 먹었
는데도 폐렴으로 발

전해버렸어요. 약의 강도를 높여도 점점 심해져 갔다니깐요.” 항생제가 무서워 약을 함부로 먹이 기도 힘들어졌다는 그 엄마에게 아기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주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외에 아기가 아플 때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연에서 약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혹독한 겨울의 추위에도 초록의 잎을 건재하게 과시하는 곰보배추라는 풀을 알려 주었다. 농약 성분이 없는 논둑이나 밭 가장자리에 돌아나는 곰보배추는 잎이 작은 배춧잎 같이 생겼어도 곰보자국이 난 것처럼 오돌토돌하다. 이 곰보배추를 잎사귀와 뿌리 채 캐다가 달여 먹이면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감기에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이러한 자연요법은 부작용이 없어서 좋다. 수년간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한 환자들에게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곰보배추를 모르는 이

신세대 엄마를 데리고 곰보배추를 찾아 나섰다. 논둑에 새파랗게 돌아난 곰보배추를 필요한 만큼만 캐도록 하였다. 혹시 필요한 주위의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인 것이다. 마침 한창 바깥 세상을 궁금해 하느라 밖에서만 사는 아기에게 감기 기운이 있단다. 집에 가던 즉시 곰보배추를 달여 연하게 보리차처럼 마시게 하였다. 며칠 후 아기 엄마가 전화를 했다. “신통하게 그 약물을 잘 먹더니 약을 먹이지 않아도 잘 나왔네요.”

우리는 이제껏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양약을 먹어왔다. 우리가 무심코 남용하게 된 약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저항력을 약하게 한다. 저항력이 약해질수록 우리 몸의 병원균은 항생제에 길들여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모든 풀과 나무를 약으로 여겨왔다. 곧 자연을 약으로 간주한 것이다. 우리 몸은 자연이다. 자연은 자연으로 낮게 해야 한다. 하느님이 주신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 돌볼 때 우리는 하나의 자연이 될 수 있다. 며칠 있으면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 무조건 약을 먹어야 낮는다는 인식의 빗장을 열고 들판을 걸어보자. 우리 주위에 흔한 풀들이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의 이름을 알아두자.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다못해 쑥과 냉이와 꽃다지의 이름이라도 불러보면 어떨까?



김계숙(요안나)
쌍백합 편집위원

입당송 시편 91(90),15,16 참조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하여 영예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오래 살게 하여 흠족케 하리라.

제1독서 신명 26,4-10

회답송 시편 91(90),1-2,10-11,12-13,14-15(◎ 15) 참조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제2독서 로마 10,8-13

복음 환호송 마태 4,4c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루카 4,1-13

영성체송 마태 4,4c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전주의 새로운 랜드

종교박해시대(1784년 - 1886년)에 전라도의 천주교 교우촌들은 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박해의 강도가 비교적 적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이유로 전라도 안에서도 평지보다는 산골짜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종교자유를 얻은 이후에 세워진 한옥성당들(퇴재성당, 수류성당, 신성리성당, 어은동성당, 화산성당) 역시 산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전주 담임 신부였던 보두네(尹, X. Baudounet) 신부는 전동성당을 전주와 같은 대도시에 그것도 오목대를 옆두에 두었다. 오목대는 당시에 전주읍성과 가까우면서도 높은 구릉으로 성당의 입지로는 제격이었다. 전망이 좋은 장소에 성당을 세우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교의 승리를 상징하는 선포(Kerigma)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주의 유생들 입장에서 볼 때, 오목대에 성당이 세워진다면 읍성 안이 그대로 내려다보이는 모양새가 되어 자존심이 상하여 대립이 지속되었다. 그러자 전주를 방문한 뮌헨 주교는 장차 대도시인 전주가 선교 사업의 중심지가 될 것을 고려하여 오목대를 포기하였다.

그렇지만 보두네 신부는 풍남문과 경기전 사이의 바로 앞에 전동성당을 세움으로써 성지로 탈바꿈시켰다. 유교에서는 사형장이나 벼락 맞은 곳 또는 절 터 등을 집터로는 금기시하였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전동성당의 정면이 항상 읍성의 객사나 경기전이 마주보이도록 북향으로 배치하였다. 명동성당의 정면이 경복궁을 향하도록 배치한 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동성당은 남문시장과 인접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로서 선교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을 것이다.

보두네 신부는 또한 전라도에 천주교를 처음 전파하다가 신유박해 때 죽은 유항검(柳恒儉)과 그의 일가족 7명을 치명자산 묘역에 안장함으로써 치명자산 일대는 천주교 묘지경관으로 조성하였다. 보두네 신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유항검 일가족의 치명자들을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상징성과 아울러 산을 오르는 고통을 통해 순교자들의 죽음의 고통을 체험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이러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치명자산 정상은 전주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였다. 따라서 신자들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인 권력주체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결국 치명자산의 성지경관은 천주교의 위상이 복권되었음과 아울러, 유교담론의 효력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던 일종의 상징경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참고).



그림 1. 치명자산 몽마르프

한편 1984년은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후 200주년이 되며, 1987년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천주교구가 자치교구로 설정된 후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준비로 한국인 성인들의 배출과 아울러, 이들이 묻혀 있던 성지들의 조성과 관리가 중요하였다. 이에 따라서 천주교구에서도 성지사업을 본

차(다례) 수강생 모집

생활차반 6개월, 생활다례, 전통다례, 풍류다례, 말차다례
모집기간 : 1월~2월
개강 : 3월
장소 : 루갈다원(한옥마을 내)
문의 : 288-3494
정 루갈다

아동 입양 상담 및 후원 상담

문의 : 02)764-4741~3
<http://www.성가정입양원.com>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계) ·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강 모집

성악 전담교수 김석원(시문)
☎ 011-680-6575
(063) 220-2644~5

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

대정항문병 전문병원 장 문 외과

치질 · 변비 · 유방크리닉
전문의 최 성 양(루가)
전문의 안 해 선(사도요한)
전문의 이 철 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063)834-6000
익산 영동동 육교 밑

젬인아트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성주간에 대한 종교음악 가톨릭성가대 지휘자 교육 실시

대상 : 지휘자와 반주자
일시 : 3월 4일(주일) 오후 2시~5시
장소 : 가톨릭 센터 3층 회의실
신청 및 접수 : 교구 사무국(285-0041)
*당일 회의실에서 접수

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치명자산은 전주교구의 신앙의 메카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전국에서 성지순례의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다.

몇 년 전에 전주교구에서는 이목대 바로 옆에 위치한 대학교(전주공업전문대학교) 부지를 구입하여 교구청을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치명자산 일대가 주목받게 되었다. 모두네 신부에 의해 전동성당이 세워지려다 실패한지 100년이 지난 지금 치명자산 일대가 새 교구청의 이전 장소가 되었다. 되돌아보면 현재의 전주교구청 건물은 처음 세워진 1970년대 초와 달리 그 상징적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었다. 시대에 따라 전주를 대표하던 랜드마크(landmark, 상징물)들로써는 전동성당, 치명자산 성지, 예수병원, 서문교회, 건지산, 승암산, 경기전, 풍남문, 전북대 본관, 코아 백화점, 전주역, 시청, 빙상 경기장, 이마트, 롯데백화점, 그리고 전라북도 도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일반적인 경관상의 이미지는 대부분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며, 그 건축 규모가 웅장하고 고도가 높으면서도, 각 분야별 대표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교구청은 주변의 높은 상가들에 파묻혀 신자들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종교경관은 간접선교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경관상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전동성당과 명동성당이 왜 초창기에 언덕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기억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치명자산 기슭에 세워지는 새 교구청은 신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전주 시민들에게도 새로운 랜드마크로 인식될 수 있는 종교적 입지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전주시 남쪽에 위치하는 치명자산 일대의 장소성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치명자산 일대는 도읍지(후백제 시대) → 불교 도량(고려시대) →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성역(조선 시대) → 천주교 성지(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등으로 그 장소적 의미가 변모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치명자산 일대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종교들의 성지로 재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새 교구청이 치명자산 기슭에 세워지는 장소적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치명자산처럼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갖는 장소는 종교적으로 혼돈의 세계에 대한 고별을 의미하며 종착점 또는 절대적인 의지처를 제시하기 위한 장소이다. 따라서 그 장소는 어떤 상징만으로도 장소의 거룩함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그 상징은 풍수지리적 명당일 수도 있고, 불교적 이상향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리스도교적 성지일 수도 있다. 종교적 인간은 성화된 세계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새 교구청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새 교구청 또한 전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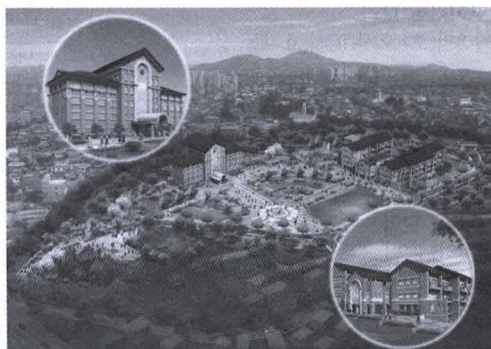


그림 2. 새교구청 조감도

<p>강성호 피부과</p> <p>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버나)</p> <p>☎(063)255-8700</p> <p>롯데백화점 옆</p>	<p>부모교육 안내</p> <p>주제: 무지개 원리를 통한 교육철학 강사: 차동엽 신부님 시간: 2월 28일 오전 10시~12시 장소: 전동 성당 대상: 성심유치원 학부모 및 누구나 연락처: 284-8347(011-9646-8647)</p>	<p>사무원(여) 모집</p> <p>자격: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고졸 이상, 전산업무(워드, 엑셀 등) 숙련자 제출서류: 세례증명서, 졸업증명서 기한: 3월 2일(금)까지 문의: 전동 성당 사제관(281-0098) 사무실(284-3222)</p>	<p>사무원(여) 모집</p> <p>컴퓨터 잘 활용하시는 참신한 신자</p> <p>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한: 3월 18일(주일)까지 문의: 시기동 성당(538-0091)</p>
<p>일일피정</p> <p>주제: 너 나를 사랑하느냐?</p> <p>일시: 3월 25일(주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치명자산(웅기가마 성당) 대상: 20대 미혼 여성 연락처: 전주 바오로 딸 서원 (☎ 252-3398)</p>	<p>인보성체 수도회 교회음악원 3기생 모집</p> <p>· 성가대 지휘자 및 지도자 과정(1년) · 성가대 봉사자 과정(1년) · 오르간 반주자 및 성악 개인수업 장소: 인보성체수도회 문의: 011-667-7205 *27일(수) 수료미사 및 3기 개강미사: 3월 3일(토) / 3월 5일(토) 첫 강의</p>	<p>예수회 성소모임</p> <p>일시: 3월 3일(토) 오후 4시 장소: 예수회 본부(서강대 K관 뒤) 주제: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문의: 02)719-1803 011-9728-1803 대상: 고등학생 이상</p>	<p>솔내청소년수련관 직원 모집</p> <p>· 모집부문: 교육팀 직원 1명 ·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각종 자격증 사본 각 1부 · 문의 및 서류제출: 063)278-8588, 428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70 3월 1일(주일) 오후 6시까지(공휴일 포함)</p>



교구장 일정

- 서울 가톨릭대학교 개강 피정
2월 25일(주일)~28일(수)
- 대전 탐방 성당 은혜의 밤 강의 미사
2월 27일(화)
- 해성고등학교 입학식 특강
3월 2일(금) 오후 2시
- 고산 성당 견진
3월 4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청년성서 만남의 잔치
3월 4일(주일) 오후 3시 30분
중앙성당

미사 · 행사 · 모임

- 전주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2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교구 여성연합회 정기총회
2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 센터
- 성 바오로 복지병원 후원회 월례강의와 미사
2월 26일(월) 오후 2시 - 강의
오후 3시 - 월례미사
차량운행 : 12시~오후 2시 중앙성당 앞
- 군산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2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성모기사회 모임
3월 3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3월 3일(토) 오전 10시 30분 송천동 성당
- 군산 하나회 미사
3월 4일(주일) 오후 2시 나운동 성당
- 포콜라레 모임
3월 4일(주일) 오후 2시
복자 성당 교육관
- 교구 가톨릭 미술가회 모임
3월 5일(월) 오후 7시 센터 온가
문의 : 박종구(018-4608-4599)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모임
3월 8일(목) 오전 10시 덕진 성당
- 혼인강좌
2월 25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 치명자산 시순절 미사
새벽 5시 30분 : 웅기가마(주차장)
오전 11시 : 산상 성당
- 빛따라 기자단 발대식
3월 4일(주일) 센터
- 익산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3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영등소리 성당

교육 · 피정 · 연수

- 천호 피정
2월 27일(화) 오전 10시
-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 전체교육
3월 4일(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윤호관(전주가톨릭신학원)
- 청년성서 만남의 잔치
3월 4일(주일) 중앙 성당
- 초등부 교리교사 아카데미 1차
3월 4일(주일) 해월리 피정의 집
- 애령회원 교육
3월 11일(주일) 오후 2시 서학동 성당
- 전례봉사자 교육
3월 18일(주일) 오후 2시 윤호관

기타

- 2007년도 전주교구 가톨릭참버
단원 모집
· 대상 : 음악전공자
(가톨릭신자 및 예비신자)
· 악기 : 바이올린, 오보에, 플루트, 콘트
라베이스, 트럼펫 등(현악, 목
관, 금관 악기 모집)
· 오디션 : 3월 15일(목) 오후 8시
센터 연습실
· 문의 : 오량(수산나) 018-893-9589
 - 김정원 토마스 신부님 5주기를 기억
하는 미사가 있사오니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1일(목) 오후 7시 전동 성당
- 전주교구 장애인 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 모집**
- 봉사내용 : 첫째 일요일(군산 나운동) 수화봉사, 둘째 일요일(전주 삼천동) 수화봉사, 셋째 일요일(익산 부송동) 반주봉사, 미용봉사
 - 봉사시간 : 오후 1시~4시
 - 문의 : 회장 임한복 011-672-6509
지도신부 양석현 011-681-0610

전주가톨릭신학원 개강시간

- 교리교육과 1 : 2월 26일 오전 10시
- 신앙연수와 1 : 2월 26일 오후 7시
- 성서교육과 1 : 3월 2일 오전 10시
- 교리교육과 2 : 2월 28일 오전 10시
- 신앙연수와 2 : 2월 28일 오후 7시
- 성서교육과 2 : 2월 27일 오전 10시
- 성서연수와
전주 주간 3월 8일 오전 10시
야간 3월 8일 오후 7시
- 군산 2월 26일 오전 10시
- 익산 2월 26일 오전 10시

좋은 영화 포럼

- 잃어버린 하느님

신은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다. 하지만 인간은 그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자유가 있다.

이 영화는 신을 심판대 위에 놓고 각 참여자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겨루며 파티장에서 게임이 진행된다.

과연 하느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와 하느님관계를 질문하게 하며, 내 안에 잃어버린 하느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 일시 : 2월 28일(수) 오후 2시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상영시간 : 28분

교구설정 70주년 기념 사진·영상자료 수집



교구 설정 70주년을 기념하여 소중한 신앙의 역사가 담긴 사진과 영상자료를 수집합니다.

문의 : 교구 홍보국 (285-0041)

*자료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사용 후 반환해 드립니다.(2월 28일까지)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

(2/11~2/17)

교구 유치원 분과 수녀님들 4,000,000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약 24,000유로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동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희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사목회장: 김기창

- ◎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냅니다! : 매일미사, 매일 묵상집을 읽고 생활합니다!
- ◎ 부임(22일): 공소 권말가리다 수녀님, 이렐레나 수녀님-환영합니다!
- ◎ 축하합니다! 운봉공소 교육관 및 기도실 완공! : 축성식 후 3시
- 1. 오늘 : 성전신축 2차 헌금
- 2. 병자 봉성체 : 28일(수) 후 2시
- 3. 성시간, 성체강복 3월 1일(목) 4. 주일학교 고백성사일 3일(토)
- 5. 제2차 성전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1,148,133단(+ 610단)
- 6. 성전신축헌금: 익명 2만
- 7. 차주 ① 예비신자 카드 봉헌식 ② 꾸리아 ③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상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사목회장: 김희태

- ◎ 성서읽기: 2월넷째주간 - 잠언8장~14장
- ◎ 미납된 교무금과 교구청 신축헌금 봉헌(완납)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사순절 저금통 각 가정에 가져 가십시오
- ◎ 차주 공소미사: 안성공소
- ◎ 성당청소: 3월3일(토) - 사정,고동반
- 1. 모임: 성심회 - 3월2일(금) 10시 미사 후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오열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사목회장: 정은열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6521004>

-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납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 ◎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9시30분 십자가 의 길
- ◎ 예비자교리 3월부터: 주일반-주일 오전9시, 목요일반-저녁미사 후
- ◎ 꾸르실로 및 M.E 수료자 1일퍼정-3일(토)
- 1. 금주모임: 꾸리아-미사 후, 제대회-2일(금)미사 후
- 2. 차주모임: 사목회-미사 후, 구역장-7일(수)미사 후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성팔
유지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사목회장: 양정석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루카 4,4).
- ◎ 보속과 재계로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냅니다.
- ◎ 2006년도 교무금을 완납하시고, 2007년도 교무금을 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선교의 해 - 성경완독, 신앙서적 읽기운동에 적극 참여바람.
- 1. 예비자 교리: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 신부님반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 수녀님반, 많은 인도바랍니다.
- 2. 성경통독반: 2월 28일부터 매주 수. 목 오전 10시 ~ 12시,
※ 목 밤 8시 ~ 10시 - 많은 참여 바랍니다.
- 3. 꾸리아 월례회의: 3월 4일(일) 교동미사 후
- 4. 선교를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현재 513,760단
- 5. 센타 신축헌금 신인액: 159,564,000원, 납입액: 118,310,000원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정식수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사목회장: 구동수
연락장소: 433-3177 유지원: 433-2293

- ◎ 예비자교리 11일부터~
- 1. 금주 ① 25일(일) 미사 후 상장예식 교육, 대진회
② 27일(화) 병자영성체 ③ 1일(목) 미사 후 사목회
④ 2일(금) 유치원 입학미사, 미사 후 성체조배
- 2. 차주 ① 4일(일) 예비신자 환영식(전8:30), 꾸리아, 꾸리아 직책별 교육(후2시), 예비신자 환영식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광석
F A X: 642-6319 사목회장: 변용섭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묵주기도 누계: 197,599단
2.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3. 성서를 통독 합니다.
4. 금주전례: 해설 - 문정희, 독서 - 이종권, 이진영
5. 차량봉사: 변용섭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 차주전례: 해설 - 조경희, 독서 - 이종권, 이진영
7. 차량봉사: 김옥기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종중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사목회장: 노제진

- ◎ 다음주일은 만남주일이며 교무금, 성소후원금 봉헌의 날입니다.
- 1. 공소미사: 성수 -28일 후, 7시
- 2. 성체강복: 3월1일 후, 7시30분 미사 후
- 3. 차주부터(3월3일 토, 후4시) 어린이 미사 시작됩니다.
- 4. 은인을 구합니다(사무실 비품, 소성당 성물): 배귀자 60만원(장의자2개)
- 5. 본당설립 50주년 기념: 누계-60,744,131원
- 6. 감사헌금: 익명 492,250원, 양귀자 10만원, 김성아 5만원, 박영순 3만원, 이정소 3만원
- 7. 구역장 회의: 오늘 미사 후 분도관.
- 8. 차주(만남주일): 해설자, 독서자, 봉헌자, 미사 후 잠시 만남이 있겠습니다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엄기봉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사목회장: 이상학

- ◎ 사목회임원, 신심단체임원연수
※ 주제: 애니아그램(내적여정)
※ 일시: 2월25일(주일) 오후 1시-저녁 10시
※ 장소: 교육관, 지도: 박정자 수녀님 참가비: 3,000원
- 1. 성서 통독반 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8시
- 2. 십자가길: 사순절 매주 금요일 미사전(9시 30분)
- 3. 선교분과 교육: 25일주일오후(2시)윤호관
- 4. 사회복지분과 교육: 3월4일오전(9시30분)윤호관
- 5. 사순절 저금통: 가져가세요
- 6. 감사헌금: 어르신성경공부반 8만원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진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사목회장: 박동표

- ◎ 사순시기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회개와 보속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시기입니다.
- ◎ 이주민을 위한 영어미사: 후 2시
- ◎ 주일학교 개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1. 성체강복: 3월 1일(목) 미사중
- 2. 금주참여공소: 상,하동 3. 금주공소미사: 번암, 차주-수분, 하동
- 4. 금주전례: 김원순, 차주-장요섭 5. 금주독서: 이범수, 강순이
- 6. 차주독서: 조스테파노, 김복순 7. 금주봉헌: 이기준, 박연심
- 8. 차주봉헌: 이영기, 김원남
- 9. 차량봉사: 금주-장요섭, 차주-김철수

- ② 6일(화) 10시 구역반장모임 ③ 7일(수) 안나, 아브라함회
- ④ 11일(일) 이명서베드로회
- 3. 판공 ① 7일(수) 12시 오암공소 ② 9일(금) 12시 동향, 안천
- 4. 십자가의 길: 화, 금 미사 30분전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2월 17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동,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라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고창, 금암동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장수, 신흥, 용안, 중앙, 신태인, 오룡동, 쌍교동, 나바위, 순창, 고산, 나운동, 나운2동, 오수, 서학동, 월명동, 우림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인후동, 여산, 소룡동, 봉동, 신동, 덕진, 서신동, 숲정이, 금마, 복자, 우전, 시기동, 팔마, 영등동, 초촌동, 원평, 대야, 슬내, 함열, 수류, 노송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무주, 송천동, 효자동, 삼천동, 연지동, 주현동, 미룡동

구 분	예 산	납 부 액	비 율
본 당	15,000,000	9,846,539	65.64%
사 제 단	1,000,000	1,219,274	121.93%
개인및 타지역(특별헌금)	1,500,000	633,229	42.22%
수 익 사 업	500,000	232,824	46.56%
합 계	18,000,000	11,931,866	66.29%

영화 - 「포도나무를 베어라」를 보고나서

두려움 없이 "깃털처럼 가볍게" 그렇게 자유롭게!

개봉일 : 2월 27일(목) 전주 프리머스

일본인 작가 엔도 슈시큐의 소설, <침묵>은 1638년 일본의 박해시기에 선교를 하던 포르투갈 선교사를 통해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인지에 대해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인간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스러운 이상과 구원이 이웃을 위한 끝없는 사랑과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겪게 되는 선택의 문제, 즉 고통과 죽음에의 공포 때문에 배교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 때문에 신자들이 고통을 받아 거꾸로 매달려야 하느냐의 양자택일의 궁지에 몰린 신부가 결국 신자의 죽음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배교'를 선택했던 그 결과에 대해 진정으로 그는 두려움을 벗어나 자유로워졌을까를 묻고 있다.

소설 <침묵>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금월에 개봉되는 민병훈 감독의 <포도나무를 베어라>도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이다. 영화 제목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하느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우리가 진정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느님 없이, 하느님 앞에, 하느님과 함께'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그릇된 '하느님 상'을 없앨 때, '진짜 하느님 상'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를 위해 뭔가 해주셔야 하는 하느님이 아닌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화 <포도나무를 베어라>는 하느님이 원하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묻는 구원과 구도의 과정을 담은 영화이다. 영화는 사건의 연결고리를 통해서가 아닌 각각

의 이야기 덩어리가 보여주는 상징을 관객이 각자의 주관에 따라 주제와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논리적인 연관성을 찾아보면 이 영화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워진다. 예컨대 우리는 영화 속에서 선택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선택은 '어느 것은 가치가 있는 만큼 다른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이분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가치있는 것이라 했을 때 보다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한다. 신학생 수현은 보다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그리고 그는 그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 그가 선택한 길에 두려움을주고 있음을 느끼며 늘 험릿처럼 주저주저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단순한 성격의 수사는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상관없이 당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습이 되어주는 것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영화는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신학생 수현의 또 다른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선택한 것과 선택하지 않은 것과의 갈등에서 고뇌하는 수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 '깃털처럼 가볍게'는 그가 선택한 길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외면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길을 다독거리며 끌어안을 때, '포도나무를 베어낸 그 자리에 다시 솟는 포도나무'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확실히 이 영화는 종교와 사랑에 대한 구원의 멜로드라마이다. 꼭 한번 보시길 권고하고 싶다.

- 홍보국장 서석희 신부